공룡화석·운석·광물…46억년 지구 신비 체험하다

5월 가정의 달 재개관한 목포자연사박물관 가보니

육식공룡알둥지 화석 원본 전시
3D 영상에 물·바람 등 특수효과
육상생명관 생명 신비 만끽

목포 갓바위문화공원 일대는 목포의 문화와 역사, 자연이 집약된 곳이다. 인근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목포문학관, 자연사박물관, 생활도자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그 가운데 목포자연사박물관(박물관)은 지구 46억년 자연의 역사를 담은 국제적 박물관으로 손색이 없다. 지구온난화로 생태계 파괴와 환경훼손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간과 환경, 지구와 생물 등 다양한 관계와 역사를 조망할 수 있다. 최근 재개관한 이곳에는 공룡화석을 비롯해 광물, 조류, 포유류, 어류 등 다양한 희귀자료가 전시돼 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지구 역사와 다양한 생물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박물관에 가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곳에선 3D 입체영상에 물, 바람, 진동 등 실시간 특수효과로 연출한 다이나믹한 생동감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박물관에는 지난 2012년 천연기념물 제535호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육식공룡알둥지 화석' 원본이 전시돼 있다. 2009년 압해대교 건설현장 지질 조사과정에서 발굴됐으며 세계적으로 산출지가 희귀한 화석자료다. 또한 공룡화석인 프레노케라톱스와 콘코랩터 외에도 지구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원본 화석, 표본 등 2만여 점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지난 2003년 향토문화관과 통합해 목포자연사박물관으로 개관했다. 그러다 최근 지구 탄생, 생명 출현과 진화를 실감콘텐츠와 가상현실로 복원한 공간 등을 갖춰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질관, 육상생명관, 수중생태관, 지역생태관, 4D입체영상관, 기증품 전시실 등에서는 46억년 지구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자연사관 중앙홀로 향한다. 이곳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육식공룡알 둥지 화석이 전시돼 있다. 육식공룡 및 해양파충류, 익룡 등 다양한 중생대 공룡 골격 등도 볼 수 있다. 마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어느 날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만큼 공룡의 골격은 입체적이다. 간간히 음향을 통해 들려오는 공룡 울음소리는 금방이라도 공룡이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이곳에는 실감기술 중 몰입감 높은 미디어 파사드가 도입돼 있다. 대형 초식공룡 디플로도쿠스를 공격하는 알로사우르스, 모성애가 강한 오비랩터를 비롯해 공룡의 기원을 말해주는 코엘로피시스와 헤레라사우르스, 해양파충류 모사사우루스 등을 볼 수 있다. 실물 크기의 공룡뿐 아니라 실감기술을 매개로 펼쳐지는 공룡의 모습은 다분히 역동적이다.

기획전시실에서는 가변성인 높은 이동형 진열장과 무빙월을 통해 다채로운 전시가 마련돼 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은 46억년 지구의 신비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생물, 화석 관련 자료 등이 전시돼 있다.

또한 김성훈 박사 부부가 40년간 수집한 조개류, 공예품, 타지마할 궁전 모형물, 티트나무 코끼리 등이 전시된 기증품전시실에서는 화려하고 섬세한 자료를 감상할 수 있다.

지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지구사진관은 다양한 생명체와 관람객이 공존하는 증강현실 체험 공간이다. 지구의 환경과 생물체들 사이에 선 관람객이 영상에 맞춰 상황을 연출하면 생생한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지구의 역사를 운석과 광물을 통해 볼 수 있는 공간도 흥미롭다. 보석, 암석이 비치된 지질관에서는 최초 다세포 새명체인 에디아카라 화석부터 신생대 포유류인 코엘로돈타까지 생명의 출현과 진화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특히 지각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광물이 발산하는 빛은 신비로움 그 자체다. 하나의 종류 또는 그 이상 원소가 결합돼 형성된 광물은 오늘날 중요한 자원으로 이용된다.

다양한 육상동식물에 대한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육상생명관은 친근하면서도 이색적이다. 대형코뿔소, 사향소, 늑대 등 희귀 박제품을 비롯해 수많은 곤충은 생명의 신비를 일깨운다. 유달산에서 자라는 희귀식물인 지네발란과 왕자귀나무, 자란 등은 지역 생태계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 자료다. 또한 황쏘가리 등 민물어류 16종을 전시한 담수어류 수족관과 서남해안 생태환경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갯벌디오라마도 눈길을 끈다.

이밖에 바로 인근에는 생활도자박물관, 문예역사관, 해양박물관, 목포문학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예향 목포가 빚은 수려한 문화와 역사도 감상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안 압해도에서 발굴된 수각류 공룡알 둥지 화석

육상생물전시관

나비표본 전시관

해설이 있는 광주비엔날레 탐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김덕진)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여섯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해설이 있는 광주비엔날레 탐방'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의 주제전과 커미션을 관람하고, 시민들과 함께 비엔날레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갖고자 기획됐다.

전문 안내원의 해설과 함께 비엔날레 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구 국군광주병원 순으로 관람하며 관람 후에는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비엔날레 토크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장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했으며 1996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부장·정책기획실장·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1999년 개소한 광주미술문화연구소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6회째 진행되고 있는 지역문화교류마당은 문화도시 광주의 기반 조성 및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문의 062-234-2727.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영화비평지 '씬 1980' 5호 발간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김지연)가 발행하는 광주영화비평지 '씬 1980' 5호가 최근 발간됐다. 2019년 9월 창간준비호를 시작으로 광주 시민과 만나온 '씬 1980' 5호는 한재섭 편집장의 '협치는 권한의 이양이다'라는 기사로 시작한다.

이번 호의 표제이기도 한 '광주영화 마스터플랜의 첫 장이 쓰여지다: 광주영상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이강필)은 광주 영화인의 노력으로 일궈낸 위원회가 광주시와 서로 소통하며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영화 정책을 선도해나가길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광주영상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윤 위원장의 인터뷰도 실렸다.

또, '지금, 대안적 영상문화 공간이 필요한 이유'(김수진), '월드 시네마, 광주'(정찬혁)를 만날 수 있으며 이태겸 감독의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임의현),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정현우)에 대한 비평도 실렸다.

트랜스크리틱 코너에서는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신귀백 영화평론가, 조광철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각각 영화 '세 자매' '미나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20세기 초 일본인들이 운영한 극장의 역사를 추적한다. 한편 '씬1980'은 올해부터 계간지 형태로 연 4회 발간되며 광주독립영화관, 광주극장, 독립서점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극단의 시대 보성 정해룡 비운의 삶 추적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 장편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 펴내

언론학자인 김민환〈사진〉 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가 장편 소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문예중앙)를 펴냈다. 소설은 실존 인물인 봉강 정해룡(1913~1969)의 생애와 아울러 그와 연결된 보성 일대 유지들, 군민들의 궤적도 추적한다. 한마디로 해방정국과 더불어 20세기 후반을 살았던 이들의 삶은 지난한 현대사의 난맥을 그렸다.

작품 창작은 작가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와 나눈 이야기가 계기가 됐다. 집을 찾아온 친구는 대뜸 족보를 보자고 했다.

"그가 택호로만 알고 있던 그의 5대 조모 '원등할머니'가 우리 집안에서 출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나는 그를 통해 그의 집안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 화려하고도 기구했다. 그의 가족사 한 토막을 소설로 낸다."

봉강 정해룡은 일제강점기 보성의 천석지기 가문에서 태어났다.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서양 학문도 접했지만, 독립운동과 민족계몽운동에 헌신한다. 그러나 해방공간에서 남북 화해와 민족 통일을 추구하는 여운형을 지지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다. 동생의 월북과 아내의 병마, 정치 참여의 실패 등 끝없는 악재기 이어진다. 결국 민족을 하나로 결집하려했던 정해룡의 높은 이상은 물거품이 된다.

이렇듯 소설은 봉강이라는 인물을 통해 격동의 근현대사와 인간 존재의 보편성을 작가 특유의 섬세한 문체와 냉철한 시각으로 형상화했다. 저자가 상정하는 '큰 새'는 오늘의 시대에도 유효한 통합과 관용의 인물일 수도 있겠다.

시인인 최동호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은 추천사에서 "주인공 봉강 정해룡은 한반도의 분단과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린 시대에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꾀하지 않고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제3의 길을 택했으나 이로 인해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련을 겪고 마침내는 좌절하고 만다. 그의 비극은 그만의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비극의 원천이 거기서 유래했기 때문"이라고 평한다.

한편 저자는 지금까지 고구려의 승려이자 화가인 담징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 '담징'과 어느 한 지식인의 청춘 회고록인 '눈 속에 핀 꽃'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